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경관 탁월하게 아름다워 가치 뛰어난 장점 일대 국방 요충문화관광 자원 다수 분포해

장흥군은 지난 15일 천관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天冠山)'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천관산은 장흥군 관읍읍 옥당리 산97-4 등 10필지에 위치하며 지정면적은 총 1,333,013㎡(국/군유지 100%)이다. 문화재청이 밝힌 천관산의 명승 지정 사유로는 산정상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 경관, 역사군락 등의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등이 있다. 천관산은 경관이 탁월하게 아름다워 경관 가치가 뛰어나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

또한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 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 자원이 다수 분포해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이처럼 장흥 천관산은 경관·역사 문화적 가치가 탁월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 119호로 지정되었다.

천관산 명승 지정을 위해 정중순 장흥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유 재산의 과다 침해를 막기 위해 문화재청에 의견 제출 및 다각도로 협의를 시도했다.

그로 인해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 문화재(명승) 119호 지정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최대 축소한 지정 구역 100m 반경으로 설정되었다.



이해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이루어 낸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자체의 국가지정 문화재(명승) 지정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모

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천관산의 다양한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문학강좌로 봄맞이 할까요?”

땅끝순례문학관 4월부터 소설·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봄과 함께 새로운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4월 6일부터 땅끝순례문학관 상주작가인 이원화 소설가와 함께 '소설의 감동을 연극으로' '해와 별을 품은 에세이쓰기' 강의를 열린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운영하는 '소설의 감동을 연극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운영했던 '화요소설모임'을 발전시킨 수업이다.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는 수동적인 수업 방식에서 나아가 소설 속 좋은 문장을 고르고 이를 연극 대본으로 구성하여 발표하

는 등 소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해와 별을 품은 에세이쓰기'는 군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하며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군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글의 주제 정하기, 문장 쓰기의 기초 등 글쓰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수강생들의 글을 엮어 종강 시 수강생 문집도 발간한다.

두 강의 모두 백련재 문학의집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기동채본부



지난 16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쌀 판매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강진쌀 판로 개척에 나선다

강진군·영동농장·강진군통합RPC·(주)시아스와 업무협약 체결

강진군이 강진쌀의 판로개척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군수 이승욱), 영동농장(대표 오경배), 강진군통합RPC(대표 채희진), (주)시아스(대표 최진철)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출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 향후 점진적인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주)시아스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제조 전문 식품기업으로 냉동제품(밥, 도시락, 국밥, 면 등) 및 즉석편의식(즉석밥, 조미식품, 장류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청주를 포함해 3개 공장에서 냉동식품, HMR(가정대용식) 등을 생산해 연간 1,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마트, 버거킹, 풀무원 등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지속적 R&D를 통해 2,000여 개 이상의 레시피를 확보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다. 강진군 신전면에 위치한 영동농장은 전국 최대 유기농인증 쌀 생산단지(79ha)로서 우렁이와 미생물을 활용한 유기농법과 벼에 음악을 들려주는 그린음악농법을 통해 유기농쌀인 '음악듣고자란쌀'을 생산하고 있다.

강진군 통합RPC는 강진 최대 쌀 건조·저장·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진군 브랜드쌀인 '새정무'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진군은 농업인 고품질 쌀 생산 지도 및 생산기반 구축지원, 영동농장과 강진군통합RPC는 양질의 강진쌀 생산과 공급, (주)시아스는 지속적인 강진쌀 매입과 신선한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영동농장과는 지난해 유기농 쌀 80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부터 유기농 쌀 공급을 150톤으로 늘리고, 강진군통합RPC 일반미(새정무) 200톤을 계약해 연간 350톤 가량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시

다음달 15일까지 홍보·단속 병행

진도군이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군민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읍면 시가지와 도심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에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금지, 쓰레기 수거 전일 일몰 후 배출을 집중 홍보한다. 또 불법 투기 쓰레기는 수거 거부와 적법 배출을 유도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에 대한 군민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군민들이 내 집·상가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등 청결한 진도환경 조성을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4개 권역 352억 투입 '어촌 성장 이끈다'

보길·약산·금일·고금권역 4개소 사업 추진 박차



완도군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에 4개 권역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35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어촌 소득 증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어촌 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2018년 공모사업에 보길권역이 선정되었다.

보길 권역은 보길 예송, 예작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커뮤니티 센터 '오우정' 및 예술마루 '소소재' 조성, 마을 공동 브랜드 민박 섬 스테이 '어부사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지난해 12월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오우정, 소소재 조성 등 사업을 착공,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9년도 선정 사업은 약산권역으로 작음리 외 3개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63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직거래 장터 등이 들어서는 약산 낙원 과 약산 장유항 다목적 어민 쉼터를 중점적으로 조성한다.

약산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년 선정 사업은 금일권역으로 동송, 구항, 용항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90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 거점항 조성, 정장년 교류센터, 육아·돌봄 복지회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귀어 체험 하우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금일권역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년 사업은 고금권역이 선정됐다. 고금 향동, 적찬, 화성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총 사업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공동 작업장, 어구 공동 보관소, 문화센터, 자원순환시설 등을 갖추고, 직거래장터를 조성하여 어촌의 새로운 소득 증대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완도=이민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